

# 문화방송노보

발행인 김연국  
편집인 이종각  
편집 김사이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8년 4월 3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 ‘78명 방출대상’ 경영진이 직접 선정했다

### 안광한 경영진, 임원회의에서 노조 파괴 공작 직접 지시

2014년 10월 31일 안광한 경영진은 대규모 인사 학살을 저질렀다. 기자, 아나운서, PD 수십 명이 자신의 직종과 무관하게 광화문 신사업개발센터, 구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경인지사 등으로 쫓겨났다. 그곳에서 사원들은 스케이트장을 관리하거나, 드론 레이싱을 유치하고, 관공서를 대상으로 영업을 다녀야 했다. 법원은 이미 이 발령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누가 이 불법행위를 지시했는지, 지금까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4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그 증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10월 24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안광한, 권재홍, 백종문 등 당시 경영진이 “방출대상” 직원 78명의 명단을 직접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배지를 “보호관찰소”라고 불렀다. “방출대상” 직원 대다수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조합원이었다.

#### ‘저성과자 해고 프로젝트’와 대규모 축출

이 모든 야만은 2012년 170일 총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됐다. 국정원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에 맞서 저항한 파업 참가자들을, 김재철 사장은 해고, 징계, 대규모 유배 등으로 격리했다. 2013년 4월 법원의 부당전보 가처분 결정이 나왔지만 경영진은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2014년 7월 안광한 전 사장은 임원회의에서 “인사고과를 매길 때 ‘R(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인력 퇴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9월 26일에는 “업무에 복귀한 R등급자들에 대해 반드시 해고 사례가 나와야 한다.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R등급을 부여하고 2015년에 3명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심지어 “이춘근, 이우환 PD 등을 광고영업으로 돌리고 R등급을 받게 하라”며 일선 PD들의 ‘방

출’을 직접 지시하기까지 했다. 당시 사측은 저성과자 해고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대형 로펌 2곳에 법률 자문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78명 방출대상 명단이 작성된 것은 바로 그 직후였다. 2014년 10월 인사 대학살은 기자와 PD 등을 대거 현업에서 배제해 영업 부서로 축출하고, 업무평가에서 R등급을 부여해 해고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이듬해인 2015년 6월 임원회의에서 안 사장은 “최소한 2,3명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하는데 왜 밑에서 얘기가 안 올라 오는가?”라며 본부장들을 재촉하기까지 했다. 당시 사측은 2012년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R등급을 부여한 상태였다. 이후에도 업무 능력과는 무관하게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집중적으로 R등급을 부여했다.

〈2면에 계속〉



〈1면에 이어〉

## 사장이 직접 일선 PD, 아나운서들 배제 지시

안광한은 2014년 9월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에게 “박경추, 김경화 아나운서 등을 빼면 신규인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나운서국의 동기문화를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선무부대’가 돼선 안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해 10월 31일 인사 대학살의 날, 임원회의는 김주하 기자, 이우환 PD, 이춘근 PD, 이용주 기자, 강연섭 기자, 한학수 PD를 뉴미디어포맷 개발센터와 신사업개발센터로 발령하도록 결정했다. 2015년 6월 안광한은 “손정은, 김경화, 오승훈 아나운서를 반드시 빼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장의 이같은 지시를 본부장들은 충실히 이행했다. 2015년 1월 원만식 당시 예능본부장은 “<진짜사나이> 제작진이 최현정 아나운서 섭외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8월 권재홍은 “노조 가입자가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10월에는 드라마 <여왕의 꽃>을 연출한 김민식 PD가 현업에 있는 것은 문제라며 DMB 주조정 실로 보내야 한다고 했고, 결국 김 PD는 1주일 뒤 TV 편성부로 발령받았다.

## 노조 탈퇴 종용, 가입 방해 직접 지시

사측이 지속적으로 임원회의에서 사원들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과 가입 방해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6월 27일 안광한은 “보직 부장들은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하라”는 자신의 지시사항을 점검했다. 실제로 이 시기 노동조합 소속 보직부장 19명 중 17명이 탈퇴했다. 이진숙 당시 보도본부장은 “보도본부 소속 보직자 박장호, 최장원이 노조 탈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사흘 뒤인 6월 30일 두 조합원은 보직을 박탈당했다.

2015년 4월 경력 공채로 입사한 사원 중 7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안광한은 임원들을 질책했다. 권재홍 당시 부사장은 “왜 MBC가 경력사원을 선발했는지 충분한 인식제고가 없다. 보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새로 채용된 사원들의 노조 가입을 어떻게든 막으라는 지시였다. 실제로 기술연구소로 발령받은 5명은 6개월 간 거의 매일 신용우 기술연구소장이 주관하는 ‘아침문안’ 명목의 회의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조 탈퇴를 압박받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들 5명과 드라마본부 노조가입자 2명 등 7명이 거의 같은 시기에 노조를 탈퇴했다.

2015년 10월 26일 안광한은 임원회의에서 “라디오 PD 경력 입사자 5명의 노조 접촉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5명은 노혁진 라디오국

장이 “선배들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등의 압박을 했고, 이런 분위기에서 노조 가입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 “집회 못 하도록, 광장에 나무 심어라!”

경영진은 노조 파괴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손길을 뻗었다. 2014년 7월 임원들은 방송기술인협회, 기자협회 등 7개 사내 직능단체가 “노조 2중대화” 될 우려가 있다며 회비의 급여공제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회비 납부를 불편하게 만들어 직능단체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 그 직후 직능단체와 동호회 등 32개 단체의 회비 급여공제가 중단됐다.

2015년 5월에는 지하에 위치한 구내식당 옆 광장을 노조가 악용할 수 있다며 나무를 심는 방식의 시설 개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내 인트라넷의 노동조합 게시판과 자유게시판도 눈에 잘 안 띄는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노조가 집회장소로 사용할 곳을 미리 집회신고해 회사가 장기 점유하는 방안, 타임오프 적용 배제, 노동조합비 급여공제 폐지까지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실행됐다.

감사마저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기담했다. 임진택 당시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노동조합에 전국언론노조(산별노조) 탈퇴를 압박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노사 동수 공정방송협의회 조항 삭제를 위한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파업을 대비해 사전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C&I·플러스 등 자회사에 대체제작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경영진의 부당 노동행위를 감시해야 할 임진택 감사 역시, 부당 노동행위의 공범이었다.



QR코드를 통해 'MBC 블랙리스트' 기획실행 일람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 드디어 드러난 물증, 3노조 간부가 백종문에게 보고

그동안 물증만 나오지 않았을 뿐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아나운서 블랙리스트’의 증거가 드디어 드러났다. 2013년 12월 제3노조 위원장인 최 모 아나운서가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에게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아나운서 성향 분석’이라는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이 성향 분석표는 아나운서 32명을 강성/약 강성/친회사 성향의 3등급으로 분류했다. 과업 참가 여부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함께 적혀 있었다.

아나운서들에 대한 인사는 이 리스트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임원 회의는 아나운서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업무 배제를 지시했다. 특히 안광한 사장은 2014년 9월 박경추 아나운서, 2015년 5월과 6월에는 손정은, 오승훈 아나운서를 배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지시는 곧바로 실행돼 박경추 아나운서는 2014년 11월 라디오편성사업부로, 오승훈 아나운서는 2015년 6월 신매체개발부로 인사가 났다. 손정은 아나운서는 같은 달 저녁 7시 라디오 뉴스에서 하차했고 이듬해 3월 사회공헌실로 전보됐다. 이렇게 2014년 봄부터 강성/약 강성으로 분류된 13명 중 9명이 아예 아나운서국 밖으로 쫓겨나가거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에 견디다 못해 퇴사한 아나운서들도 5명에 달한다.

노동조합은 이미 지난해 10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제 백종문과 제3노조 간부가 결탁해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실행한 물증이 나왔다. 노동조합은 백종문 전 부사장은 물론 블랙리스트 작성자인 최 모 아나운서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 아나운서 성향 분석 (국 총원 42명)

#### ■ 강성(왕따, 패거리 짓기 등 언론노조 복귀지침 준수) 6명

성명	직급(입사년도)	진행프로그램	기타
박○○	차장대우(97)	골프중계, 라디오 조근	
신○○	차장대우(96)	없음	아나운서협회장
김○○	사원(04)	축구중계 등 스포츠 중계	동계올림픽 출장예정
서○○	사원(04)	파워매거진, 원더풀 금요일	연수복귀 피업가담 타부서발령자 복귀 후 돌변
최○○	사원(05)	사내 행사사회, 특집방송 진행	
허○○	사원(06)	각종 스포츠 중계	동계올림픽 출장예정

#### ■ 약 강성(복귀지침을 준수하진 않지만 상황에 친 언론노조성향) 7명

성명	직급(입사년도)	진행프로그램	기타
차○○	차장대우(00)	세계도시여행DJ	
박○○	차장대우(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김○○	차장대우(00)	꾸러기 식사교실	류○○으로 교체 예정 신설 어린이 프로그램 투입
김○○	사원(07)	주말뉴스투데이, 야구 읽어주는 남자, 스포츠 중계	
이○○	사원(08)	생방송 오늘 아침	
이 ○	사원(10)	930뉴스, 세상을 여는 아침DJ	
오○○	사원(11)	통일전망대	

##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 기획부터 실행까지 박용찬에게 보고 3노조 간부가 주도 ·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역시 조직적인 범 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이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후 당시 사측은 “보도본부 간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허위 문서”라고 주장했다. 작성자인 제3노조원 권 모 카메라기자는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며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문건 내용은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모두 보도국 부국장급인 박용찬 당시 취재센터장에게 보고됐다. 문건 작성 한 달 전인 2013년 6월 제3노조 간부인 임 모 카메라기자는 박용찬 센터

장에게 ‘보도영상 관리 개선방안’이라는 문서를 보고했다. 문서는 “현 상황이 노조 영향력 하에 있는 인물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면서 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한달 뒤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이듬해인 2014년 3월 주 모 부장의 지시에 따라 몇 차례 수정됐다. 3월 13일,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12명의 성향 분석과 인사 이동안이 담긴 문건이 박용찬 씨에게 보고됐고, 바로 다음날 인사가 단행됐다. 12명 중 9명의 기자가 이 문건 내용 그대로 인사 이동됐고, ‘언론노조 강성 세력’으로 분류된 다른 2명은 데스크 업무를 박탈당했다.

박용찬, 주 모 부장, 제3노조 간부 임 모 씨, 작성자 권 모 씨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의 블랙리스트 폭로 직후인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시쯤 동시에 구 인트라넷에 접속해 메일을 대량 삭제했다. 이들이 접속한 건 이미 서비스가 중단된 예전 버전의 인트라넷이었으며, 당시 박용찬 씨는 사회문화체험 출장 기간이었다. 노동조합은 이미 고소한 권 모 기자는 물론이고, 박용찬, 주 모 부장, 제3노조 간부 임 모 씨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 노조 파괴, 블랙리스트에 3노조 동원 적폐 경영진, 조직적으로 3노조 지원 3노조 간부들이 직접 블랙리스트 작성해 보고

2010년 2월 16일 MBC 김재철 사장의 취임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은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문건을 작성해 국정원장 원세훈, 그리고 이명박 청와대에 보고한다. MBC 노조 탄압의 구체적 방법과 로드맵이 들어있는 문건이었다. 해당 문건에는 “건전성향 노조위원장 당선 측면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방송장악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국가 정보기관이 나서서 어용노조 설립을 지원한다는 충격적 내용이었다.

2012년 170일 파업이 끝난 직후인 2013년 3월 김세의 기자, 박상규 기자, 최대현 아나운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MBC 노동조합’, 이른바 제3노조가 출범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적폐 경영진이 노조 파괴를 위해 3노조를 지원하고, 3노조 간부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8월 21일 임원회의에서 보도본부장 김장겸은 “제3노조 공동위원장 김 모 기자가 소외되고 있다. 앵커 후보로 올려줄 수도 있다. 3노조의 세력 구축이 중요하므로 조용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같은해 12월 안광환 사장도 임금협상과 관련해 “3노조와는 적절히 상황 공유하면서 상호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언론노조는

낙인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인 차별을 지시했다. 2016년 10월 권재홍 부사장은 “김 모 3노조 위원장이 외롭지 않도록 회사가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고, 김상철 감사는 한술 더 떠 “김 모 기자의 인터뷰 조작 의혹에 대한 방문진 감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적폐 경영진의 특혜 지원과 노조 차별에 호응하듯, 3노조 핵심 인사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이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 모 당시 3노조 위원장은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에게 보고했고, 임 모 현 3노조 위원장은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세의와 최대현은 2017년 2월 MBC 앞에서 열린 극우단체 집회 단상에 올라가 ‘탄핵 반대 세력’ 지지 발언을 했고,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쓰인 팻말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어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MBC 건전노조 지원 방침’은 장기간에 걸쳐 실제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